

3.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또는 보유하는 경우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를 예시(파생상품 제외)하면 <표 7>과 같다(1039.AG39,AG40).

<표 7>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또는 보유하는 경우

구 분	사 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②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② 유가증권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시장위험을 다시 양도자에게 이전하는 총수익스왑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④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가능성이 높은 대손의 보상을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4. 은행계정조정표

(1) 은행계정조정표의 의의

특정시점에서 회사의 당좌예금장부상 당좌예금잔액과 은행의 당좌예금원장상 잔액은 일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상호간의 금액이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서는 일정시점마다 당좌예금의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불일치되었을 때 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당좌수표 발행에 대한 내부통제를 철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좌예금의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을 일치시키는 조정표를 은행계정조정표(bank reconciliation)라고 한다.

(2) 당좌예금잔액의 불일치 원인 및 조정방법

당좌예금의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 및 은행계정조정표상 불일치 사항의 조정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은행측 조정사항

종 류	내 용	은행계정조정표 조정방법
은행미기입예금 (deposit-in-transit)	회사가 수령한 타인발행수표를 은행에 입금하고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에도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결제시스템상 은행이 동일자로 입금처리하지 않고 다음날 입금처리한 경우	은행측 잔액이 회사측 잔액보다 작으므로 은행측 잔액에 가산한다. 회사측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회사의 입금회계처리는 정당한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회사측 잔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기발행미지급 (미인출, 미결제) 수표 (outstanding checks)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에 출금처리하였으나, 수표 소지인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측 잔액이 아직 출금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은행측 잔액이 회사측 잔액보다 많으므로 은행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회사측 잔액에 가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회사의 출금회계처리는 정당한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회사측 잔액을 수정하지 않는다.
은행측 오류	갑회사 수표를 을회사 수표로 오인하고 을회사 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 등	오류발생금액만큼 가산 또는 차감한다.

〈표 9〉 회사측 조정사항

종 류	내 용	은행계정조정표 조정방법
받을어음의 추심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받을어음을 은행에 추심의뢰하고 은행은 정상적으로 어음결제일에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어음지급액을 수령하여 회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처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모르고 장부에 입금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측에서 받을어음 추심에 대한 입금처리를 누락했기 때문에 회사측 잔액에 가산한다.
부도수표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수표를 수령하여 장부에 입금처리한 후 은행에 입금하였으나, 동수표가 부도수표로 판명되어 은행에서 최종 입금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회사측 입금처리가 잘못된 것이므로 회사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종 류	내 용	은행계정조정표 조정방법
은행수수료, 이자비용 등	은행이 어음추심료 또는 당좌차월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회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출금처리하였으나,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장부에 출금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측에서 출금처리를 누락했기 때문에 회사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회사측 오류	수표 ₩5,200을 발행하면서 당좌예금 장부에는 ₩2,500으로 출금처리한 경우 또는 A은행 수표를 발행하면서 B은행 수표로 오인하여 B은행 당좌예금장부에서 출금처리한 경우 등	오류발생금액만큼 가산 또는 차감한다.
미통지입금	회사의 거래처에서 온라인으로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장부에 입금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측에서 입금처리를 누락했기 때문에 회사측 잔액에 가산한다.

(3) 은행계정조정표 작성 절차

은행계정조정표는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일치되는 지의 여부를 보여주지만 하면 된다. 은행계정조정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작성될 수 있다.

- ① 회사측 잔액을 은행측 잔액에 일치시키는 방법
- ② 은행측 잔액을 회사측 잔액에 일치시키는 방법
- ③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을 함께 일치시키는 방법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방법 ①과 방법 ②를 적용하면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 중 어느 금액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좌예금의 정확한 잔액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작성한 은행계정조정표는 의미가 없으며 방법 ③에 따라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여야만 정확한 수정후의 당좌예금 잔액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방법 ③에 따라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할 수 있으면 당연히 방법 ①과 방법 ②를 이용해서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 ③을 기준으로 은행계정조정표 작성을 연습하면 된다. 방법 ③에 따른 은행계정조정표의 개략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은행계정조정표				
××년 ×월 ×일 현재				
회 사 측 잔 액	×××	\neq	은 행 측 잔 액	×××
받 을 어 음 의 추 심	+		미 기 입 예 금	+
부 도 수 표	-		기 발행 미지급수표	-
은행수수료, 이자비용	-		오 류	±
미 통 지 입 금	+			
오 류	±			
조 정 후 잔 액	×××	$=$	조 정 후 잔 액	×××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면 특정시점의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을 구할 수 있는데, 회사가 장부에 반영해야 할 수정분개는 회사측 조정사항뿐이다. 은행측 조정사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정되거나, 은행측에서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예 1 은행계정조정표의 작성

A회사는 매월 말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여 당좌예금을 통제하고 있다. 20×1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상 잔액은 ₩1,000,000이고 은행측 당좌원장상 잔액은 ₩1,060,000이다.

다음은 당좌예금의 회사잔액과 은행잔액의 불일치 원인이다.

- ① 은행이 A회사의 받을어음을 추심하고 ₩50,000을 입금시켰으나 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 ② 회사가 12월 31일에 ₩30,000을 은행에 예입하였으나 은행은 20×2년 1월 2일에 입금처리를 하였다.
- ③ 은행이 수수료 ₩10,000을 A회사 계좌에서 출금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 ④ 회사가 12월 30일에 입금시킨 ₩20,000의 수표가 부도수표였으나 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
- ⑤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 ₩40,000의 수표가 12월 31일까지 은행에 제시되지 않았다.
- ⑥ A회사가 발행한 수표 ₩20,000을 은행의 착오로 B회사의 계좌에서 출금처리하였다.
- ⑦ 회사가 임차료 지급건으로 수표 ₩10,000을 발행하면서 장부에는 ₩20,000으로 기장하였다.

☞ 물음

1.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을 함께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20×1년 12월 31일 현재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라.
2. 회사가 해야 할 수정분개를 하라.

❶ 풀이

1. 은행계정조정표

회사측잔액	₩1,000,000	은행측잔액	₩1,060,000
어음추심	50,000	은행미기입예금	30,000
은행수수료	(10,000)	기발행미지급수표	(40,000)
부도수표	(20,000)	은행의기장오류	(20,000)
회사의기장오류	10,000		
조정후잔액	<u>₩1,030,000</u>	조정후잔액	<u>₩1,030,000</u>

2. 회사측 조정사항에 대해서만 수정분개를 한다.

① (차) 당좌예금	50,000	(대) 매출채권	50,000
③ (차) 지급수수료	10,000	(대) 당좌예금	10,000
④ (차) 부도수표	20,000	(대) 당좌예금	20,000
⑦ (차) 당좌예금	10,000	(대) 임차료	10,000

5.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

(1)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의 의의

전술한 은행계정조정표는 특정시점에서 회사측과 은행측의 당좌예금 잔액이 불일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는 표이다. 은행계정조정표가 당좌예금의 통제수단이라는 하지만 이는 특정시점의 잔액에 대한 통제이지 일정기간 동안 당좌예금의 입금과 출금의 통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월 중에 회계담당자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월말에 다시 동액을 은행에 입금시키면서 출금과 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장부에 기장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수표의 발행업무와 장부기장업무를 한 사람이 수행하게 되어 업무의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부정의 사례로서 당좌예금의 은행측 월말잔액과 회사측 월말잔액은 일치하나, 월 중 입금총액과 출금총액은 은행측과 회사측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시점의 당좌예금잔액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당좌예금 입금과 출금까지 회사측 금액과 은행측 금액이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당좌예금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시점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은행측 당좌예금 입·출금 금액과 회사측 당좌예금 입·출금 금액까지 일치시키는 은행계정조정표를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4-column bank-reconciliation) 또는 현금검증표(proof of cash)라고 한다.

(2)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의 작성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특정시점에서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고, 두 특정시점간의 회사측과 은행측의 입금과 출금을 각각 일치시켜나가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의 작성은 전술한 은행계정조정표 작성의 연장으로 보면 된다.

다음의 (예 2)를 통해서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의 작성절차를 설명하기로 한다.

예 2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

다음은 갑회사의 당좌예금 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회사측>

11월 30일 잔액 : ₩100,000 12월 31일 잔액 : ₩210,000
 12월 중 입금총액 : ₩2,010,000 12월 중 출금총액 : ₩1,900,000

<은행측>

11월 30일 잔액 : ₩125,000 12월 31일 잔액 : ₩229,000
 12월 중 입금총액 : ₩2,015,000 12월 중 출금총액 : ₩1,911,000

<차이원인>

차 이 원 인	11월 30일 현재	12월 31일 현재
어 음 추 심	₩10,000	₩15,000
은 행 수 수 료	5,000	6,000
은 행 미 기 입 예 금	30,000	20,000
기 발 행 미 지 급 수 표	50,000	40,000
부 도 수 표	-	10,000

한편 11월 30일 현재 조정사항은 회사가 12월 중에 장부기장하였으며, 부도수표는 은행에서 처음부터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갑회사의 12월의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현금검증표)를 작성해보자.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현금검증표)의 작성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11월 30일자로 양자를 독립적으로 일치시키는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한다.
- ② 12월 31일자로 양자를 독립적으로 일치시키는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한다.
- ③ 입금란과 출금란을 일치시키는 조정을 한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는 작성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I)	(II)	(III)	(IV)
	11월 30일	입금액	출금액	12월 31일
회사측 장부금액	₩100,000	₩2,010,000	₩1,900,000	₩210,000
조정사항				
어음추심	11.30. 10,000	(10,000) ⁽¹⁾		
	12.31.	15,000 ⁽²⁾		15,000
은행수수료	11.30. (5,000)		(5,000) ⁽³⁾	
	12.31.		6,000 ⁽⁴⁾	(6,000)
부도수표	12.31.	(10,000) ⁽⁵⁾		(10,000)
조정후 회사측 금액	₩105,000	₩2,005,000	₩1,901,000	₩209,000
은행측 장부금액	₩125,000	₩2,015,000	₩1,911,000	₩229,000
조정사항				
은행미기입예금	11.30. 30,000	(30,000) ⁽⁶⁾		
	12.31.	20,000 ⁽⁷⁾		20,000
기발행미지급수표	11.30. (50,000)		(50,000) ⁽⁸⁾	
	12.31.		40,000 ⁽⁹⁾	(40,000)
조정후 은행측 금액	₩105,000	₩2,005,000	₩1,901,000	₩209,000

- 먼저 11월 30일란(I)과 12월 31일란(IV)의 회사측 금액과 은행측 금액을 일치시키는 은행계 정조정표를 작성한다.
- 이제 (II)와 (III)란에 금액을 기입하는데 먼저 논리적으로 어떻게 조정금액이 들어가는지를 설명하고 그 뒤에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 은행은 어음을 추심하면서 11월 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회사는 12월 입금으로 처리하였다. 은행측 회계처리가 옳으며 은행측 입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12월 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은행은 어음을 추심하면서 12월 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회사는 아직 12월 입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은행측 회계처리가 옳으며 은행측 입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12월 입금액에 가산한다.
 - 은행은 수수료를 11월 출금으로 처리하였으나 회사는 12월 출금으로 처리하였다. 은행측 회계처리가 옳으며 은행측 출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12월 출금에서 차감한다.
 - 은행은 수수료를 12월 출금으로 처리하였으나 회사는 아직 12월 출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은행측 회계처리가 옳으며 은행측 출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회사의 12월 출금에 가산한다.
 - 회사는 부도수표인줄 모르고 이를 입금처리하였으나 은행은 이를 입금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입금에서 차감한다.
 - 회사는 11월 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은행은 12월 입금으로 처리하였다. 회사측 회계처리가 옳으며 회사측 입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은행의 12월 입금에서 차감한다.

- (7) 회사는 12월 입금으로 처리하였으나 은행은 아직 12월 입금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회사측 회계처리가 옳으며 회사측 입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은행의 12월 입금에 가산한다.
- (8) 회사는 수표를 발행하면서 11월 출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동수표는 12월 중에 은행에 제시되어 12월 출금으로 처리되었다. 회사측 회계처리가 옳으며 회사측 출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은행의 12월 출금액에서 차감한다.
- (9) 회사는 수표를 발행하면서 12월 출금으로 처리하였으나 동수표는 아직 12월 중에 은행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사측 회계처리가 옳으며 회사측 출금액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은행의 12월 출금액에 가산한다.

한편 실제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기계적으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1. 11월 30일 란의 조정금액과 12월 31일란의 조정금액을 입금란(Ⅱ) 또는 출금란(Ⅲ)에 이기한다. 이 때 어떤 금액을 입금란에 표시하고 어떤 금액을 출금란에 표시하는가 하는 것은 각 금액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된다. 예를 들어 어음을 추심하면 당좌예금 입금이 되고 수수료는 비용으로서 당좌예금 출금이 된다. 또한 은행미기입예금은 당좌예금 입금이 되고 기발행미지급수표는 당좌수표발행과 관련된 항목이므로 당좌예금 출금이 되는 것이다.
2. 입금란과 출금란에 이기한 금액에 괄호표시(차감표시)여부를 결정한다. 괄호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Ⅰ)과 (Ⅳ)란 금액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 즉, (Ⅰ)란의 금액을 (Ⅱ)란에 이기하면 부호가 반대로 되고 (Ⅲ)란에 이기하면 동일부호이다. 마찬가지로 (Ⅳ)란의 금액을 (Ⅲ)란에 이기하면 부호가 반대로 되고 (Ⅱ)란에 이기하면 동일부호이다. 즉, 특정시점의 은행계정조정표 란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란의 부호는 반대가 되고 한 란이 떨어져 있으면 동일부호가 되는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예 2)에서 회계담당자가 월중에 장부에 기장을 하지 않은 채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월말이 되기 전에 다시 입금처리를 했다면 12월 중의 회사측 입금·출금 총액이 은행측 입금·출금 총액보다 작을 것이며, 그 차액만큼이 현금의 부정사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한편 4위식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오류나 부정은 적발할 수 없다.

- ① 수표 금액을 잘못 기재하고 장부에도 잘못 기재한 금액으로 기록한 경우
-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수표를 입금하면서 장부기장을 누락하였는데 발행된 수표가 은행에 제시되지 않거나 수표의 입금처리가 다음 날 이루어진 경우